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전남, 인구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전국 최고

작년 전남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15.18명...전국평균 2.5배

전남지역의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지난해 기준 15.2명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의미다.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내놓은 '2020년 호남권 교통사고 세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18명으로 전국 평균(5.9명)의 2.5배를 넘어섰다.

이같은 사망자 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경북 13.7명, 충남 12.6명, 전북 12.0명, 충북 10.8명, 제주 10.1명 등의 순이었으며 광주는 4.3명에 그쳤다.

전남 시·군별로는 구례군이 31.11명으로 가장 높았고 보성 27.17명, 고흥 26.59명, 신안 25.68명, 진도 25.6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목포시는 7.59명, 광양시 9.22명, 순천시 9.57명, 여수시 9.63명 등에 그쳤다.

한편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560명으로 지난 2019년(581명)에 비해 3.6% 감소했으나 사망자 비율(11명)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보행자 사망자 수가 17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0.7%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 수는 2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8.2%를 차지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34.6% 감소했으나 호남지역은 58명(10.4%)으로 전년(52명) 대비 11.5% 증가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호남권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최근 3년간 31.2% 감소했지만 사망자 비율은 여전히 높다”며 “익산국토관리청과 지자체, 경찰청 등은 호남권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전년 대비 20% 낮출수 있도록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고흥 코로나19 전수검사 긴 줄

3일 오후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방역당국이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전날부터 공무원 등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오는 10월 착공

순천 신대지구에 2023년 5월 준공
 행정수요 증가 대비 면적 등 확대

전남도는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부권 통합청사의 면적과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키로 하고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건립하며 2023년 5월 준공 목표로.

통합청사 추진은 도청이 서부권에 치우쳐 발생하는 동부권 주민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동부권에 흩어진 도 산하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2018년 9월 시작했으며, 지난해 4월 당초 설계안에 비해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초 240명이 근무하도록 설계했던 청

사는 기본계획 보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최대 310명이 근무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1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사무실 면적은 1만㎡에서 1만3000㎡로 늘었다.

주차장도 288대(지하 43대·지상 245대)를 계획했으나, 민원 편의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총 810대(지하 102대·지상 308대·순천시 공영주차장 400대)로 확대했다.

2050 전남도 탄소중립 종합비전을 반영해 동부권 통합청사를 탄소제로 건물로 건립한다.

전남도는 최근 공사와 관련한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사 기간을 재산정 했

김정환기자

고흥군, 하루 만에 지난 1년 확진자 넘어서... 곳곳서 '비상'

1월29일 13번째 이후 15명 집단감염
 고흥읍·도화면·초등학교 전수검사

고흥에서 하루만에 지난 1년간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를 넘어서는 감염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고흥 곳곳에서 전수검사가 펼쳐졌으며 방역당국은 확진자 추이에 따라 전 주민 검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후 고흥군 고흥읍 공설운동장은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순자의 손을 잡은 할머니를 비롯해 어린이를 품에 안은 부모, 노부부, 학교를 마친 교생 등 주민들은 방역당국이 운동장 내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거리두기를 하며 차례를 기다렸다.

결국 선별검사소를 향한 긴 줄은 공설운동

장 외곽을 따라 길게 늘어서기에 이르렀다.

이어 30분 이상 기다려 검사를 받은 한 어린이는 부모의 품에서 잠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노인들은 코안 깊숙이 들어가는 면봉이 익숙하지 않은 듯 인상을 찌푸렸다.

업무를 중단하고 검사를 받기 위해 나온 회사원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연신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검사를 기다렸다.

고흥지역에서는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전남 1059번·고흥14번)이 코로나19 확진된데 이어 직원 7명, 초등학교를 포함한 가족 6명, 소방서 대원 1명 등 총 15명 줄줄이 감염됐다.

고흥지역 코로나19 확진은 지난 1월29일 13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0여일만이다. 또 확진자 15명은 고흥지역에서 지난 1년동안 발생했던 13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이에 따라 고흥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공무원 확진자가 근무했던 공간을 폐쇄하고 우선 고흥읍 주민 1만2000여

명, 도화면 주민 38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 감염자가 나온 초등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고흥 곳곳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짐에 따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흥읍 주변에 형성된 식당가는 문을 닫고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한 70대 노인은 봄 나물을 팔기 위해 읍내 길가에 좌판을 펼쳤지만 상가 주인이 코로나19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이내 돌아섰다.

고흥읍의 한 식당 주인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읍내 전체가 예전보다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농사철을 앞두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불안하다”며 “더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기동취재본부

오늘의 한걸음, 미래의 행복백신

행복으로(로) 걷기 광산

시민 & 동아리 모집

이렇게 신청하세요

개인 (주민)

W

- 1 워크온 앱 설치 및 실행
- 2 광산구 커뮤니티그룹 행복으로 가입

동아리 (5인 이상 단체)

- 1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2 동아리 가입 신청서류 제출

문의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